‘3선 도전’ 김산…당내 경쟁이 변수

나광국·이정운·류춘오·최옥수 등과 한판 승부 예고

무안군수

김산 나광국 류춘오 최옥수

현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주요 인사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나광국 전남도의원, 이정운 전 무안군의회 의장, 류춘오 무안군체육회장, 최옥수 전 무안군산림조합장 등이다. 아직까지 공식 출마 선언은 없지만, 각 인사들이 지역 활동 반경을 넓히고 조직을 정비하면서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한 분위기다.

김산 군수는 무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활동을 거쳐 2018년 군수 선거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당시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돌풍을 일으켰고, 이후 민주당에 복당해 2022년 재선에도 성공했다. 두 차례 선거 모두 치열한 접전을 뚫고 당선된 경험은 그가 군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이후에도 남악·오룡 신도시 정주 기반 확충, 호남고속철도 2단계 착공,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복지·교육 환경 개선 등 군정 전반에서 성과를 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 내 대항마 구도도 만만치 않다. 나광국 전남도의원은 세대 교체론의 상징으로 꼽힌다. 목포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11대 전남도의회에 최연소 의원으로 입성한 그는 추진력 있는 의정 활동으로 이름을 알렸다. 특히 도서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전천후 종합병원선’ 구상은 전국적 주목을 받으며 민주당 정책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나 의원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지역 내에서는 출마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결국 도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류춘오 무안군체육회장도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 중 하나다. 청계면 출신으로 광성산업건설 대표이사이기도 한 그는 지역 체육계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다. 2022년 무안군체육회장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강화를 내세우며 체육 행정에 변화를 이끌었다.

이정운 전 무안군의회 의장은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강점으로 앞세운다. 무안군청에서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20년 넘게 행정 실무를 쌓았고, 군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해 제8대 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민주당 컷오프 위기 속에서도 최종 후보로 확정됐던 경험이 있는 최옥수 전 무안군산림조합장 역시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제3지대 정당의 움직임도 변수다. 아직 구체적인 후보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조국혁신당 등 신당 세력이 후보를 낼 경우 민주당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총선과 재보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만큼, 지역 선거 지형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상익 3선 가도…당내 경선 ‘후끈’

이성일·정정희·조성철 도전장…제3세력과 본선 주목

함평군수

이상익 이성일 이윤행 조성철

현재까지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은 3선에 도전하는 이상익 현 함평군수, 이성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특별위원, 이윤행 전 함평군수, 정정희 전 전남도의원, 조성철 더불어민주당 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자문위원 등 5명이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이상익 군수다. 2020년 보궐선거에서 첫 당선된 뒤 2022년 재선에 성공하며 내년 선거에서 3선에 도전한다. 두 차례 연속 군정을 맡아온 만큼 ‘연속성과 안정’이라는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지만, 동시에 지난 임기에 대한 평가가 그대로 표심에 반영되는 만큼 부담 또한 크다. 특히 그가 연루된 뇌물수수 의혹 사건 항소심이 오는 10월 말 개시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결과가 선거 구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성일 특별위원은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지역민과 물밑 접촉을 강화하는 등 사실상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전남 함평 출생인 이 특별위원은 국가균형발전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 흐름과 재정 지원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함평 현안을 국가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정희 전 도의원은 광역 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을 제도화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내세우고 있다. 의회 활동에서 다져온 정책 감각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군정 운영의 새로운 동력을 강조하고 있다. 조성철 전 자문위원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무기로, 정책 전문성과 중앙 협력 네트워크를 내세우며 지역민과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제3세력의 존재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조국혁신당 소속의 이윤행 전 군수는 과거 함평을 이끌었던 경험을 무기로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군정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행정 조직과 예산 운영에 강점을 어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재임 시절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사실상 독주하는 지역 구도 속에서 조국혁신당이라는 차별화된 간판은 일정한 표심을 흡수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함평 선거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약진하거나 돌풍을 일으킨 사례가 적지 않아, 민주당 대 제3세력 구도가 본선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3선 도전이라는 새로운 변수, 민주당 내부의 치열한 경쟁, 조국혁신당 후보의 존재가 더해지면서 2026년 선거는 과거보다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현규 기자

장세일 재선 의지…치열한 접전 예고

김한균·이동권·장기소 등과 경선…조국혁신당·진보당과 최종 승부

영광군수

장세일 김한균 양재휘 이동권

영광군수 선거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장세일 군수가 재선 의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 다수 인사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정당 후보군이 맞서며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장세일 군수는 취임 이후 짧은 임기에도 여러 정책 성과를 강조하며 재선을 노린다.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영광’을 군정 기조로 내세운 그는 국비·공모사업 1000억 원 이상 확보,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선정, 어르신 버스 무료화,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등을 대표 성과로 꼽는다. 특히 1인당 10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은 지역에서 체감도가 높았던 정책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내에선 다수의 도전자가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김한균 영광군의원은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영광군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김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소통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부의장직을 맡은 바 있다.

이동권 전 전남도의원은 8·9·10대 도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다. 두 차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그는 “실패를 경험 삼아 더 단단해졌다”며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다듬고 있다.

군의회에서만 5선을 지낸 장기소 의원도 출마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1년가량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출마는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재휘 영광기본소득위원장도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군민 기본소득 1000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신재생에너지와 주민참여를 결합한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과거 민주당에서 활동하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험을 지닌 그는 지역 내 진보정치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지난해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장현 교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기반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이다. 정원식 조국혁신당 영광·함평 지역위원장 역시 출마를 준비 중이다.

진보당의 이석하 영광지역위원장은 지난해 재선거에서 3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입증했다. 그는 이후 마을 현장을 중심으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군민이 선택해 준 변화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며 재도전 의지를 굳히고 있다.

보수 진영인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 후보 발굴과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현규 기자

정책 비전 승부수…4파전 구도 뚜렷

김한종 군수 재선 도전…유성수·소영호와 경쟁 본격화

장성군수

김한종 소영호 유성수 박노원

내년 치러질 장성군수 선거가 사실상 ‘4파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재선을 준비하는 김한종 현 군수를 비롯해 유성수 전 전남도의원, 소영호 전 전남도 전략산업국장, 박노원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잇따라 출마 채비에 나서면서다. 이들 후보 모두 지방의회나 도정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풀뿌리 정치인·정통 관료 출신으로, 단순한 인지도 경쟁을 넘어 누가 더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한종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군정을 이끌어왔다. 그는 농업 기반 강화, 복지 서비스 확대, 문화·관광 자원화 등을 3대 과제로 내세워 균형 발전을 추진해 왔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 현실을 반영해 정주 여건 개선, 장성호 관광지 활성화, 생활 인프라 확충에 집중했다.

박노원 전 부군수도 본격적으로 출마 채비에 나서고 있다. 그는 전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했으며, 제8회 지방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청와대 행정관과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전남도 투자유치담당관을 거쳐 장성군 부군수를 역임했다.

유성수 전 전남도 의원은 두 번째 도전에 나선다.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이번에는 ‘변화’와 ‘민생 체감’을 기치로 내세웠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교육 재정과 정책을 조율했고,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도당 부위원장, 전남혁신회의 공동대표 등을 역임하며 당내 정책 기획과 혁신 작업에도 참여했다.

소영호 전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형 인물이다.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지사 비서실장, 정책기획관, 목포시 부시장, 농축산식품국장 등 요직을 거쳤고, 전략산업국장 재임 시에는 전남형 신성장 산업 발굴, 첨단농업 기술 도입, 바이오·에너지 기반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정책 기획과 집행의 양면에서 능력을 입증하며 행정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는 최근 명예퇴직 후 “30년 행정 경험을 토대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장성을 만들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두고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운 김 군수, 생활형 공약으로 변화를 강조하는 유 전 의원, 미래 전략을 앞세운 소 전 국장이 맞붙는 구도”라고 평가한다. 인물 경쟁을 넘어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력이 표심을 가를 최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3선 연임 제한 무주공산…경선 치열

김신·이철·김세국·신의준 등 여권 후보자만 8명 거론

완도군수

김신 지영배 신의준 이철

완도군수 선거가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현 신우철 군수가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불출마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자리를 두고 현재까지 8명의 주자가 도전 의사를 드러냈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인물은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이다. 군의회와 도의회를 거치며 지역 정치를 두루 경험한 그는 강력한 추진력과 현장 중심 리더십으로 존재감을 높여왔다. 관광·예술·해양치유·수산업을 융합한 ‘제2의 장보고 시대’ 구상을 내놓으며 완도의 미래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 내 조직 기반도 탄탄해 선거판을 이끌 중심축으로 평가된다. 이 부의장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군민들과 소통에 나서겠다”며 밝히기도 했다.

김세국 전 전남도 감사관 역시 눈여겨볼 주자다. 완도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감사원과 전남도에서 요직을 맡은 그는 중앙과 지방을 넘나든 풍부한 경험을 자산으로 내세운다. 감사관 재직 시절 빈집·해양폐기물 정책 감사 등 현안을 다뤄온 실무력이 강점이다. 현역인 신의준 전남도의원은 의정활동 성과로 주목받고 있다. 연륙·연도교 건설, 지역 균형개발 같은 생활밀착형 공약을 앞세워 도서지역 표심을 정조준한다.

이들과 함께 선거전에 나선 후보군은 각기 다른 색채를 보인다. 김신 전 완도군의원은 제4·5대 군의원으로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며 기반을 다졌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여전히 현장 친화력과 결속력으로 유력 주자로 꼽힌다.

신영균 전 경제산업국장은 30여 년의 공직 경험을 앞세운다. 완도군청과 전남도청, 국무총리실에서 쌓은 폭넓은 이력은 중앙 인맥과 연계된 정책 추진력으로 이어진다.

우홍섭 전 진도부군수는 정무 감각과 행정 경험을 결합한 인물이다. 7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해 전남도 정무부지사 비서, 신안군 해양수산과장 등을 지냈다. 최근 완도 내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지영배 전 전남도 국장은 기획력과 추진력이 돋보인다. 전남도청에서 한전공대 설립 지원단 직무대리를 맡아 지지부진하던 한전공대 설립을 성사시킨 주역으로 꼽힌다. 현재는 대학에서 활동하며 지역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으며, 풍부한 중앙 인맥을 바탕으로 한 전략가적 면모가 강점이다.

허궁희 완도군의원은 군의회 의장을 지낸 경험과 수산 현장 이해도를 내세운다. 전복·다시마·광어 등 양식업 현장에서 직접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민과 소통하는 능력이 두드러진다. 어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 정치가 그를 차별화하는 대목이다.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는 다자 구도다. 민주당 성향 후보들이 다수인 만큼 당내 경선 경쟁이 본선 못지않게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표 분산을 막기 위한 후보 간 단일화 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